

현대역 된 고소설 출판물과 출판 유통 및 독서 환경의 변화

- 도서 구독 플랫폼 '밀리의 서재'를 중심으로 *

최수현 **

<차례>

1. 서론
2. '밀리의 서재' 속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의 유통 현황
 - 1) '밀리의 서재' 내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 목록
 - 2) '밀리의 서재' 내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의 양상
3. 도서 구독 플랫폼 속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의 현대역 및 유통 활성화 방안 모색
 - 1) 도서 구독 플랫폼 속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의 현대역 방안
 - 2) 도서 구독 플랫폼 속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의 유통 활성화 방안
4.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도서 구독 플랫폼 속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의 양상 및 유통 현황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도서 구독 플랫폼에서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의 현대역 및 유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본 것이다. 이는 전반적인 독서율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전자책을 통해 도서를 향유하는 현대 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대 독자들과 고소설을 현재 그리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만나게 할 유의미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서 구독 플랫폼의 특성상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도서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 독자들에게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에 대한 접근을 경제적인 측면이나 편의성

* 이 논문은 2023년 8월 17일 한국고전연구학회 제123차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하였음. 논문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학술대회 토론자 정혜경 교수님과 심사 과정을 통해 조언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 부교수

측면에서 좀 더 쉽게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 우선 주된 분석 대상으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월정액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소설을 비롯한 일반 도서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밀리의 서재’를 택했다. 앞으로의 방향 탐색을 모색하기에 앞서, 현재 도서 구독 플랫폼인 ‘밀리의 서재’에서 유통되는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의 실태를 알아보았다. 2023년 8월 ‘밀리의 서재’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은 81종의 작품이 현대역 된 329편이었다. 다양한 종류의 고소설 하위유형의 작품이 현대역 되고 있으며, 2020년 이후 출간된 전자책들이 상당히 많이 유통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고소설 전자책 뷰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전자책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 번역자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도서 구독 플랫폼과 연계해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의 현대역 및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현대역 출판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질의 현대역 전자책 유통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번역자, 편역자, 해제, 저본 정보 등의 기재가 필요하다. 둘째, 구독 서비스 내에서 유통되는 전자책의 형태 및 기능을 가독성 측면에서 생각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챗북과 같은 숏콘텐츠나 도슨트북 등과 같이 현대역 출판물의 범주 및 출간 매체를 확장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유통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양질의 콘텐츠 확보 및 플랫폼 내 소비자를 통한 콘텐츠의 질 검증과 공유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플랫폼 내에서 웹소설이나 플랫폼 내 자체 인문서 등과 큐레이션과 같이 큐레이션 방식에 대한 고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 밀리의 서재, 도서 구독 플랫폼, 구독 경제, 고소설 현대역, 독서 환경

1. 서론

조선 후기 향유되던 고소설은 오늘날 다양한 변화를 통해 대중과 만나고 있다. 현대역으로 옮긴 출판물이나 이를 활용해 제작한 영화, 드라마, 웹툰, 게임 등과 같은 콘텐츠의 모습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것이 그 예이다. 고소

설, 특히 고전이라 여겨지는 소설들이 시대를 넘어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이 같은 작업들은 여전히 의미와 가치가 있다. 이러한 고소설을 현대 대중 및 콘텐츠 창작자와 만나게 할 방법이 고소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현대역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고소설 현대역 작업은 의미 있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다.

그런데 고소설 현대역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현대역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적 측면에 대한 고민과 함께 필요한 것이 변하고 있는 출판 유통 상황과 독서 환경에 대한 고려이다. 대중과 만나지 못한 현대역, 만나기만 기다리는 현대역은 아무리 좋은 현대역일지라도 그 가치를 대중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질의 고소설 현대역을 하는 내용적 방법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현대역 출판물을 어떻게 유통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은 매우 중요한 것이자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21년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간(2020.09~2021.08) 일반독서를 한 권 이상 읽은 연간 종합 독서율은 성인은 47.5%, 학생은 91.4%로, 2년 전 대비 성인은 8.2%, 학생은 0.7% 감소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종이책 독서율은 성인 40.7%, 학생 87.4%로 19년도에 비해 11.4%, 3.3% 감소했으나, 전자책 독서율은 성인 19%, 학생 49.1%로 19년도에 비해 2.5%, 11.9% 증가했다.¹⁾ 또한 19년도 대비 21년의 연간 도서 구입량을 살펴보면 성인(종이책 2.5권→1.9권, 전자책 0.9권→1.1권)과 학생(종이책 4.3권→4.3권, 전자책 0.9권→2.4권) 모두 종이책 구입량은 줄거나 같고, 전

1)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2021, 11~12쪽; 안지섭, 「문체부, '2021 국민 독서실태' 발표... 성인·학생 독서율은 줄었지만 20대는 늘었다」, 《독서신문》, 2022.01.14,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837>, 2023.07.13. 검색.

자책 구입량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²⁾

이로 미루어 볼 때, 전체 독서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전자책 독서율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책 독서율의 증가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대중들이 종이책을 구매하거나 도서관에서 대출해 보던 것에서 전자책을 구매하거나 구독하거나 대여해보는 방향으로 독서 환경이 변해가고 있음을 방증한다. 때문에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의 유통 상황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자책이 유통되는 시스템에도 시선을 돌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주목을 요하는 것이 새롭게 등장한 도서 구독 플랫폼이다. 도서 구독 플랫폼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일정 기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도서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 제공되는 상당수의 책이 전자책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구독 경제’는 새로운 유통 트렌드로 부상했다. 이전에도 상품을 구독하는 방식은 있었지만, 현재의 “구독 경제란 일정 기간 일정액을 지불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신개념 유통 서비스”³⁾를 지칭한다. 이 용어는 2018년 Zuora의 창업자인 Tien Tzuo가 처음 사용했는데, 그는 새로운 시대의 소비자는 과거의 소비자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역설하며, 특히 새로운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이 다른데, 예를 들면 제품보다는 서비스를 원하며 규격화보다 맞춤화를 선호하고 소유보다는 경험과 가치를 중시한다고 보았다.⁴⁾

2)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2019, 21쪽;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2021, 16쪽.

3) 「구독경제」,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list.naver?cid=43667&categoryId=43667>, 2023.08.14. 검색.

4) 티엔 추오·케이브 와이저트, 박선령 역, 『구독과 좋아요의 경제학』, 부키, 2019, 1장 한 시대의 종말.(천혜정, 「누가 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가 : 구독 서비스 유형별 구독 동기, 구독 만족도 및 구독 지속 의도의 관계」, 『소비자문제연구』 53(1), 한국소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 등을 손쉽게 접하게 해주는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로 인해 우리는 이미 구독 플랫폼에 익숙한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도서 역시 이러한 구독 경제의 한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 전자책 시장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아마존은 2014년에 ‘킨들 언리미티드(Kindle unlimited)’를 출시해, 월정액 9.99달러로 전자책 100만여 권과 오디오북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⁵⁾ 정다희에 따르면 국내 주요 전자책 회사도 2017년부터 ‘콘텐츠별 선택 결제’에서 ‘콘텐츠 구독 서비스’로 콘텐츠 제공 방식을 변경해 도서 구독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⁶⁾ 현재 국내 도서 구독 플랫폼으로는 ‘밀리의 서재’, ‘교보문고 샘(sam)’, ‘리디북스 리디셀렉트’, ‘크레마 북클럽(구 YES 북클럽)’, ‘오디오북 윌라’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도서 구독 플랫폼 속 도서의 향유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고소설의 현대역 및 유통 방안에 대한 고민은 이러한 측면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간 고소설 현대역에 대한 연구는 주로 현대역 방안과 관련해 내용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졌다. 현대역의 양상을 파악하고, 시대와 독자에 따른 어휘, 문체, 서사 내용 번역 방법, 해제, 삽화 등 가독성을 높일 방안에 대한 탐색이 주를 이루었다.⁷⁾ 대중과 고소설의 소통을 확장하는데

비자원, 2022, 93쪽에서 재인용.)

- 5) 송석주, 「전자책 급속 확장에 국내의 출판계는 기대만 우려만」, 《독서신문》, 2021.03.16, <http://www.readersnews.com>, 2023.08.13. 접속.
- 6) 정다희, 「전자책 구독 서비스 이용 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1(10),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0, 1792쪽.
- 7) 이에 대한 대표적인 다음의 논의들을 들 수 있다. 송성욱, 「고전소설 텍스트 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학논총』 41, 한국문학회, 2005, 5~20쪽; 권혁래, 「구운몽의 현재적 소통과 다시 쓰기 출판물」, 『은지논총』 27, 은지학회, 2011, 7~41쪽; 송성욱, 「〈구운몽〉과의 현대적 소통-현대역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399~427쪽; 임치균, 「번역의 관점으로 본

필수적인 것이 양질의 현대역이기에, 이에 대한 모색은 매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국문장편소설의 현대역 방안을 출판 상황과의 연관 속에서 탐색한 논의가 있다. 정혜경은 국문장편소설의 미감을 현대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축약본과 오디오북으로 출판 형태를 다양화하고 구독형 플랫폼으로 이용 경로를 확장하며, 대중적 확산과 고전 브랜딩 전략을 제안했다.⁸⁾ 이 논의는 앞으로의 독서 환경 속에서 국문장편소설이 현대 독자와 소통하게 할 다양한 방안을 유통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고소설과 대중의 소통 방법 모색의 일환으로 고소설 대중화 방안 연구들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최근 강문중은 고소설 전공자가 실제로 대중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중 강연, 간단한 유튜브 영상 제작, 대중서 출판 등의 사례를 검토하고 제안했으며, 유광수는 라디오 방송, 블로그, 팟캐스트 등의 매체 속에서 고소설을 포함한 고전문학의 대중과의 소통 방안을 고안했다. 한편 정혜경은 넷플릭스와 왓차를 중심으로 OTT 서비스 속에서 고전소설을 활용한 콘텐츠들을 유통시킬 방안에 대해 탐색했다.⁹⁾

한글 고전소설 현대어화의 실제: 낙선재본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24, 돈암어문학회, 2011, 7~32쪽; 김문희, 「장편가문소설의 현대역의 문제와 고전()의 재구성」, 『우리말 글』 57, 우리말글학회, 2013 161~190쪽; 김명주, 「한국고전소설 현대역 텍스트 연구: 〈홍길동전〉, 〈사씨남정기〉, 〈박씨전〉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168쪽; 조현우, 「국문 고전소설의 현대역 방안 연구」, 『한국고전연구』 54,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 47~78쪽.

8) 정혜경, 「국문장편소설의 현대적 출판과 대중화 전략」, 『한국고전연구』 56, 한국고전연구학회, 2022, 123~161쪽.

9) 강문중, 「고전소설 대중화 양상 연구」, 『한국고전연구』 59, 한국고전연구학회, 2022, 57~90쪽; 유광수, 「고전의 현재적 계승 방법과 의미-라디오 방송의 경우」, 『어문논집』 87, 중앙어문학회, 2021, 35~68쪽; 유광수, 「고전문학의 계승과 확장 방안-블로그, 팟캐스트 연재의 경우」, 『열상고전연구』 80, 열상고전연구회, 2023, 195~234쪽.

이 외의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도서 구독 플랫폼과 관련한 논의로는 전자책 구독 플랫폼의 특성과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웹소설의 특징을 살핀 논의, 대학생의 전자책 구독 서비스 이용 실태를 점검한 논의 등이 있다.¹⁰⁾

이 글에서는 도서 구독 플랫폼 속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의 양상 및 유통 현황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도서 구독 플랫폼에서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의 현대역 및 유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분석할 도서 구독 플랫폼은 ‘밀리의 서재’이다. 이 플랫폼은 국내에서 최초로 월정액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으며, 다른 도서 구독 플랫폼에 비해 회원수를 공개하고 있고¹¹⁾, 소설을 비롯한 일반 도서를 많이 제공하고 있으며¹²⁾, 개별 전자책의 판매가 아니라 전자책 구독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곳이라는 점에서 다루기에 적합한 플랫폼이다.

2017년 10월 출시된 ‘밀리의 서재’¹³⁾는 2023년 6월 누적 회원수가 600만 명,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가 14만권, 파트너를 맺고 있는 출판사가 총 1800 곳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10월 기준, 이수경 KB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B2B를 제외한 월평균 ‘밀리의 서재’ 유료전환율은 42.6%, 월평균 재구독률은 82.3%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현재 전자책 월 정기구독은 9,900 원, 두 달에 한 번 종이책도 함께 배송받는 종이책+전자책 정기구독은 월

정혜경, 「고전소설 콘텐츠의 OTT 서비스와 그 미래-구독형 서비스 넷플릭스와 왓차의 영화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75, 열상고전연구회, 2021, 45~90쪽.

10) 최연진, 「전자책 구독 플랫폼 소설 연구 ‘밀리의 서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21, 1~109쪽; 신혜원, 「대학생의 전자책 구독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사용성 평가」,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1~117쪽.

11) 최연진에 따르면, 리디북스 리디셀렉트, 크레마 북클럽, 교보문고 샘(sam)은 가입자 수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 최연진(2021), 앞의 논문, 13쪽.

12) ‘교보문고 샘’의 경우 장서 보유량은 약 61만 종이나 이 중 상당수는 학술논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리디셀렉트의 경우는 일반도서도 제공하고 있으나 웹소설이나 웹툰 제공 비중이 크다.

13) 리디북스 리디셀렉트는 2018년 3월, 크레마 북클럽은 2018년 11월, 교보문고 샘(sam)은 2019년 3월 출시되었다. 최연진(2021), 앞의 논문, 13쪽.

15,900원에 서비스 중이다. 또한 ‘밀리’의 서재’는 개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 및 단체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국내 도서관들도 이용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전자도서관은 ‘밀리’의 서재’ 어플리케이션을 통합전자도서관 중 전국 최초로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회원들에게 구독권을 제공하던 것에서 나아가 현재는 기업 ID를 발부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기교육통합전자도서관이나 서울예술대학교 도서관에서도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¹⁴⁾ 이상에서와 같이 ‘밀리의 서재’는 2017년 출시 이후, 보유 도서 및 회원이 꾸준히 늘고 있고, 개인뿐 아니라 도서관과 같은 단체를 통해서도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국내 도서 구독 플랫폼에 비해 대표성을 보다 띤다고 판단되어, 도서 구독 플랫폼의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아직까지 도서 구독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도서 중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의 점유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 구독 플랫폼 속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유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전자책을 통해 도서를 향유하는 현대 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대 독자들과 고소설을 현재

14) ‘밀리의 서재’ 서비스 및 정보 개괄과 관련한 내용은 ‘밀리의 서재’, ‘충청남도 교육청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내용 및 다음의 기사를 참고, 정리한 것이다.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 유선준, 「‘밀리의 서재’,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신청 ... “괄목할 성장 이뤄”」, 『파이낸셜뉴스』, 2023.06.02, <https://www.fnnews.com>, 2023.08.15. 검색; 이가흔, 「책으로 달콤한 세상 만들어요」, 『한국일보』, 2023.07.29, <https://www.hankookilbo.com>, 2023.08.14. 검색; 도현정, 「이병헌 빼고도 잘 나간다 ... ‘구독’으로 42억 벌어들인 이 회사」, 『중앙일보』, 2023.07.17, <https://www.joongang.co.kr>, 2023.08.14. 검색; 류정운, 「국내 최대 전자책 플랫폼 ‘밀리의 서재’, 향후 전망은」, 『업타운뉴스』, 2022.10.31, <http://www.updownnews.co.kr>, 2023.08.14. 검색. 충청남도교육청 통합도서관(<https://lib.cne.go.kr>), 2023.08.15. 검색; 박보성, 「충남 교육청, 통합전자도서관으로 슬기로운 여름방학 독서생활 밀착 지원」, 『충청일보』, 2023.07.28, <https://www.ccdailynews.com>, 2023.08.14. 검색. 이후 밀리의 서재에 대한 기본 정보는 밀리의 서재 홈페이지 및 밀리의 서재에서 출간한 『밀리 독서 리포트』를 참고했음을 밝힌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만나게 할 유의미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서 구독 플랫폼의 특성상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도서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 독자들에게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을 경제적인 측면이나 편의성 측면에서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게 한다고 여겨진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변화하는 출판 유통 및 독서 환경 속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의 양상 및 유통 상황을 살펴 이에 대한 유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밀리의 서재’ 속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의 유통 양상

1) ‘밀리의 서재’ 내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 목록

한 달에 9,900원을 지불하면 14만 종의 책을 구독할 수 있는 ‘밀리의 서재’에서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들은 얼마나, 어떻게 유통되고 있을까? 도서 구독 플랫폼에서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의 유통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현재 ‘밀리의 서재’에서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유통, 소비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밀리의 서재’ 내에서 2023년 8월 유통되고 있는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의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¹⁵⁾ 이 조사는 2023년 8월 11일, 12일 양일 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또한 ‘밀리의 서재’에서 유통되는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의 목록화 작업은 다음 방식으로 진행했다.

15) ‘밀리의 서재’에서 제공되는 출판물은 출판사와의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되는 구독 기간이 각각 다르다. 때문에 위에 조사 기간에 제공되던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이 계약에 따라 향후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새로운 도서가 제공될 수도 있다. ‘밀리의 서재’ 측은 서비스가 종료될 도서는 ‘내 서재’ 및 ‘서비스 종료 예정 도서 모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서 종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 『한국고전소설사큰사전』¹⁶⁾에 제시된 고소설 제명을 ‘밀리의 서재’에서 검색해 현대역 출판물의 제공 유무를 확인함
- 개별 고소설 작품에 몇 편의 현대역 출판물이 존재하는지 확인함
- 1종의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이 상하권 내지 여러 권으로 출간된 경우, 현대역 출판물 1편으로 집계함
- 1권의 현대역 출판물에 여러 종의 고소설의 현대역이 들어있는 경우 중복 입 밝힘
- 현대역 출판물의 편역자, 출판사가 동일해도 ‘밀리의 서재’ 내 카테고리나 출판 판형 등이 달라지는 경우 각각 집계, 모든 것이 동일하나 2번 제시되는 경우는 1권으로 집계함
- 현대역은 대상 독자에 따라 번역 방식(직역, 의역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유통 현황을 일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현대역도 포함함
- 한국어 현대역과 영역이 함께 있는 출판물의 경우는 집계에 포함하고, 영역만 있는 출판물은 집계에서 제외함
- 전자책 출간 연도 및 편역자 정보는 전자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 기재 내용과 전자책 기재 내용이 다른 경우, 전자책 기재 내용을 우선으로 정리함
- 오디오북의 경우 이번 연구에서는 일괄적으로 집계에서 제외함

연번			연번			연번		
1	계축일기	4	28	서유록	1	55	이생규장전	9 9
2	곽해룡전	1	29	소대성전	1	56	이춘풍전	3 2
3	광문자전	8	30	소학사전	1	57	임경업전	1
4	구운몽	10	31	숙영낭자전	1	58	임진록	3
5	금강탄유록	1	32	숙향전	6	59	임호은전	1

16) 조희웅, 『한국고전소설사큰사전-부록1. 작품 목록』 70, 지식울 만드는 지식, 2017.

6	금방울전	1		33	순금전	1		60	장국진전	1	1
7	김신선전	9	7	34	신유복전	2		61	장끼전	9	3
8	김원전	1		35	심청전	12		62	장풍운전	1	1
9	김태자전	1		36	쌍천기봉	1		63	장현전	1	1
10	까치전	1		37	양반전	11	8	64	장화홍련전	4	
11	남염부주지	11	1	38	양산백전	1		65	전우치전	6	4
12	두껍전	3		39	열녀함양박씨전	7	7	66	정비전	1	1
13	마두영전	1		40	예덕선생전	9	8	67	조웅전	4	
14	마장전	5	5	41	오대검협전	1	1	68	진대방전	1	1
15	만복사저포기	11	11	42	오일론심기	1	1	69	창선감의록	1	
16	무학대사전	1		43	옥단춘전	2		70	채봉감별곡	1	
17	미인도	1		44	옥황기	1		71	최척전	1	
18	민옹전	6	6	45	옹고집전	9		72	최치원전	2	
19	박씨전	3		46	왕경룡전	1		73	춘향전	11	3
20	박태보전	3		47	용궁부연록	11	11	74	취유부벽정기	11	11
21	방한립전	1		48	우상전	5	5	75	콩쥐팍쥐전	6	1
22	배비장전	5	1	49	운영전	4	3	76	토끼전	10	5
23	변강쇠전	2	1	50	원생몽유록	1	1	77	허생전	9	7
24	부목한전	1	1	51	유씨전	1	1	78	호질	8	7
25	사씨남정기	6	1	52	유우춘전	1	1	79	홍계월전	2	
26	상사동기	1	1	53	유충렬전	2		80	홍길동전	16	3
27	서동지전	1		54	은애전	1	1	81	홍부전	12	4
총 329편 (182권)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3년 8월 기준, ‘밀리의 서재’에서 유통 중인 고소설 현대역은 81종의 작품이 현대역 된 329편에 이른다. 이 중 같은 제목 아래 묶인 현대역 출판물의 중복 집계를 1권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81종의 고소설 작품의 현대역이 182권으로 제공 중임이 확인된다. ‘밀리의 서재’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서가 대략 14만 권임을 감안하면,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의 비중은 약 0.00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고소설 제명으로 검색되지 않고, 여러 작품을 선별해 현대역을 한 후, 새로운 제목을 붙인 현대역 출판물의 경우까지 추가한다면 플랫폼에서 현재 유통 중인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은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공 중인 현대역은 영웅소설, 가정소설, 판소리계 소설, 국문장편소설 등 다양한 고소설 하위작품군을 아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밀리의 서재’ 내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의 양상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밀리의 서재’에서 유통되는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 플랫폼 내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의 유통 및 소비 양상을 파악해보자. 먼저 ‘밀리의 서재’에서 유통되는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 중 현대역 편수가 많은 고소설 작품을 알아보자.

1	홍길동전	16
2	홍부전	12
3	심청전	12
4	만복사저포기	11
5	양반전	11
6	춘향전	11
7	취유부벽정기	11
8	남염부주지	11
9	용궁부연록	11
10	구운몽	10
11	토끼전	10
		126편

일반	88
청소년	7
어린이	31
	126편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23년 8월, 10편 이상의 현대역 전자책이 유통되는 고소설로는 <홍길동전>, <홍부전>, <심청전>, <만복사저포기>, <양반전>, <춘향전>, <취유부벽정기>, <남염부주지>, <용궁부연록>, <구운몽>, <토끼전> 등 11종이 확인된다. 즉 영웅소설의 대표작인 <홍길동전>,

관소리계 소설, 〈금오신화〉¹⁷⁾, 한문단편으로 많이 언급되는 박지원 작품¹⁸⁾, 17세기 소설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김만중의 〈구운몽〉의 현대역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작품들은 기존의 종이책이나 전자책으로도 많이 출판되었던 작품들이다. 때문에 구독 플랫폼에서도 이와 같은 작품들의 유통이 활발하다는 점으로 미루어, 종이책이나 전자책과 구독 플랫폼에서 많이 유통되는 작품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11종 작품의 현대역 출판물을 ‘밀리의 서재’에서 제시한 카테고리 분류에 따라 살펴보자. ‘밀리의 서재’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들어 이에 해당하는 도서들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 ‘어린이’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을 “그림책, 동화책, 유아어린이 학습, 초등 문학, 초등 학습법, 만화, 매거진”으로 제시하고 있어, 여기에 해당하는 도서들은 유아 및 저학년용 도서라고 볼 수 있다. 이 분류에 따라 10편 이상 현대역 된 고소설을 정리해보면 일반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88편, 청소년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7편, 어린이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31편으로, 어린이 독자를 대상으로 한 출판물은 대략 2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밀리의 서재’의 이용자를 연령별로 살펴본 통계에 따르면, 주요 구독자는 20대와 30대로, 20대가 31.8%, 30대가 25.8%를 차지하는데 비해, 10대는 11.9%에 그치고 있다.¹⁹⁾ 따라서 ‘밀리의 서재’ 플랫폼 이용자 연령 분포에 비해 고소설 현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린이용 현대역이 많이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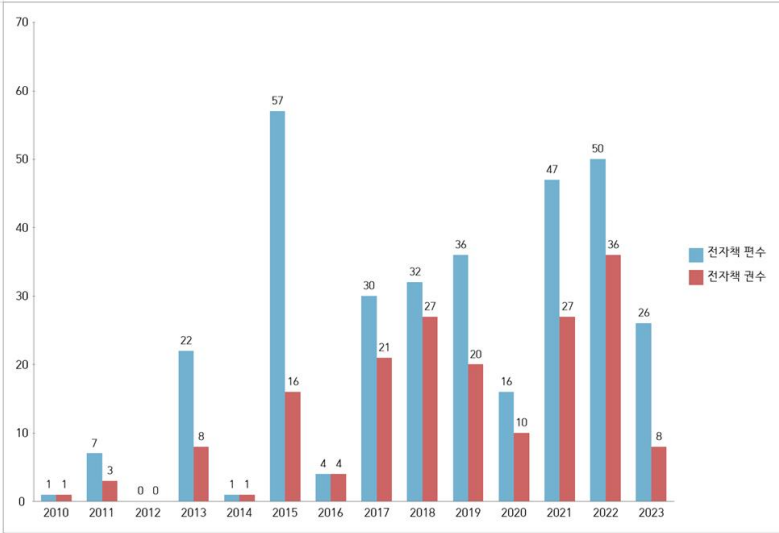
17) 10편까지 확인되지 않지만 〈이생규장전〉의 경우도 유통되고 있는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은 9편이 확인되었다.

18) 박지원의 또 다른 작품인 〈호질〉과 〈허생전〉의 경우도 유통되고 있는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로 각각 9편이 확인되었다.

19) 밀리의 서재, 『밀리 독서 리포트 2022』, 밀리의 서재, 2022, 10쪽, 전자책.

다음으로 ‘밀리의 서재’에서 유통되는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의 출간 연도를 살펴보자.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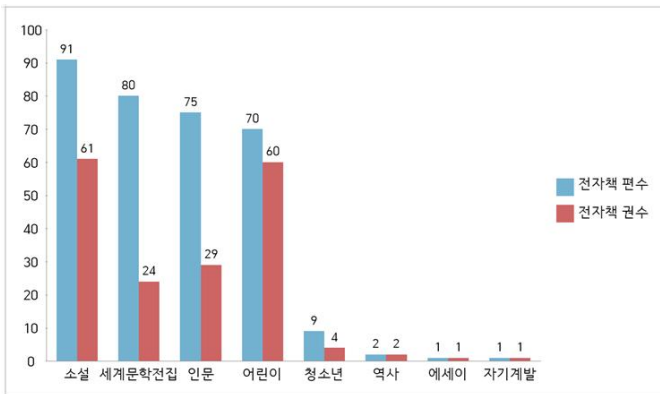


현재 ‘밀리의 서재’에서 유통되는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은 2010년부터 2023년에 출간된 출판물이다. 이 중 전자책 출간 연도가 빠른 것은 2010년에 출간된 『방한림전』(장시광 옮김, 이담북스)이다.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유통되는 전자책의 연도별 출간 편수(권수)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유통되고 있는 전자책은 최근 시기에 출간된 것들이 많음이 확인된다. 코로나19를 전후로, 2020년 이전 10년 간 출간된 전자책이 190편(101권)인데 비해, 2020년 이후 4년간 출간된 전자책이 139편(81권)이기 때문이다.

20) ‘전자책 편수’는 1권의 출판물에 여러 종의 고소설 작품 현대역이 실려 있는 것을 각각 집계한 것을, ‘전자책 권수’는 여러 종의 고소설 작품 현대역이 1권에 함께 실려 있을 때 1권으로 집계한 것을 의미한다.

한 종의 작품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구독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전자책과 일반 전자책을 비교해보았을 때 차이가 나타남이 발견된다. 구독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홍길동전>을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인 전자책과 비교해보면 이를 알 수 있다. 같은 시기 교보문고에서는 총 72권의 <홍길동전>이 종이책, 전자책, 교보문고 도서 구독서비스인 SAM에서 유통 중인데, 이중 전자책은 37권이다. 이들 전자책 중 2020년 이전에 출판된 것이 29권, 2020년 이후 출판된 것이 8권으로, 2020년 이후 출판된 전자책은 대략 22%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밀리의 서재’ 내 유통 중인 <홍길동전>은 2020년 이전에 출판된 것이 9권, 2020년 이후에 출판된 것이 7권으로, 2020년 이후 출판된 전자책이 대략 44%에 달해, 교보문고 내 유통 중인 전자책과 비교해 2020년 이후 출판 전자책이 2배 가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밀리의 서재’ 내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이 어떤 분야에 속해 유통되고 있는지를 카테고리 분류를 통해 살펴보자.



‘밀리의 서재’는 구독자들이 도서 검색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유통하고 있는 출판물들을 카테고리 분류화해 검색 화면에 함께 제공하고 있다. ‘밀리의 서재’가 제공하고 있는 카테고리는 28개로, 구체적으로는 ‘도슨트북, 밀리오리지널, 오리오북, 챗북, 디즈니, 만화, 독립출판, 매거진, 소설, 세계문학전집, 경제경영, 자기계발, IT, 외국어, 에세이, 여행, 라이프스타일, 부모, 어린이, 청소년, 인문, 철학, 사회, 과학, 역사, 종교, 로맨스 BL, 판타지 무협’이다.

이중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이 속한 카테고리는 ‘소설, 세계문학전집, 인문, 어린이, 청소년, 역사’ 등이다.²¹⁾ 전자책 편수로 보았을 경우, 많은 수의 전자책이 속한 카테고리 순위는 ‘소설→세계문학전집→인문→어린이’ 순이다.

고소설 역시 소설이기에 현대역 전자책 역시도 카테고리 가운데 ‘소설’ 부분에 가장 많이 분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밀리의 서재’에서는 ‘소설’ 카테고리 이외에도 ‘소설’ 카테고리 와 같은 층위에 별도로 문학 전집류를 유통하는 출판사를 중심으로 이들 출판사에서 나온 출판물을 포함하는 ‘세계문학전집’ 카테고리를 두고 있는 점이다. 주로 이곳에 포함된 출판물은 열린책들, 민음사, 펭귄클래식, 문예출판사, 을유문화사 등에서 출판된 전집류이다. 지식의 숲에서 출간된 넥서스 한국문학선집 시리즈나 각 출판사에서 출간된 세계문학전집에 포함된 고소설 현대역이 주로 ‘세계문학전집’ 카테고리에 분류되어 있다. 이는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 ‘세계문학전집’ 부문을 ‘소설’의 하위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는 것²²⁾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러한 분류는 한국 고소설뿐 아니라 이를 포함한 세계의 고전소설들을 구독자들에게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1) ‘에세이’로 분류된 전자책은 『구운몽』(리플레이)이며, ‘자기계발’로 분류된 전자책은 『방한립전』(이담북스)으로, 이들 분류는 분류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

22)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 <https://product.kyobobook.co.kr>, 2023.08.15. 검색.

다음으로는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의 형태, 번역자, 해제, 판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자.

전자책 뷰어 기능 사용	225	131
전자책 PDF	104	51
	329편	182권

‘밀리의 서재’에서 유통되는 전자책은 모두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뷰어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된 전자책이다. 그런데 이들 전자책 가운데에는 플랫폼 뷰어에서 제공하는 기능(공유, 하이라이트, 메모, 사전 검색, 구글 검색 등)을 독서하는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전자책과 열람은 가능하나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어려운 PDF 전자책 두 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의 형태 분포는 뷰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전자책이 225편, PDF 전자책이 104편으로, 약 74%가 뷰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전자책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고소설을 현대역한 편/역자, 현대역 된 고소설의 저본, 해당 고소설에 대한 해제의 기재 방식과 저본 정보 제공 여부를 살펴보자.

번역자 이름 기재	276	146	기재	146	75
편집자로만 기재	19	15	미기재	183	107
미기재	34	21			
	329편	182권		329편	182권

현재 ‘밀리의 서재’ 내 유통 중인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의 번역자 이름 기재 방식은 크게 기재된 경우, 편집자로만 기재된 경우, 기재가 없는 경우

세 가지로 파악된다. 번역자의 이름이 기재된 경우는 276편, 편집자로 기재된 경우는 19편,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는 34편이다. 이중 편집자로 전자책에 기재가 되었더라도, 해당 책을 검색해서 뷰어로 열람하기 전 도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에 번역자 내지는 편집자로 추정되는 이의 이름이 기재된 경우가 19편(15권) 중 9편(5권)이 있다.

대개 종이책으로 출간된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의 경우는 번역자의 이름과 함께 이들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밀리의 서재’에서 유통 중인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에는 번역자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경우보다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편수 기준 약 12% 많았다. 번역자에 대한 정보 기재는 전자책 뿐만 아니라 전자책을 소개하고 있는 페이지 정보까지 포함한 것이다.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데에는, 일부는 종이책으로 출간된 후 전자책으로 다시 출간하면서 종이책 표지 날개에 있던 번역자 정보가 누락된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는 이에 대한 기재 필요성을 적게 느끼는 데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기재 ²³⁾	274	142	기재	70	40
미기재	55	40	미기재	259	142
	329편	182권		329편	182권

이와 함께 ‘밀리의 서재’ 내 유통되는 전자책에 해당 고소설 작품의 해제가 기재된 경우는 274편으로, 기재가 안된 경우에 비해 66% 많았다. 반면 해당 현대역이 고소설의 어떤 이본을 대상으로 현대역을 한 것인지, 저본

23)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현대역 전자책이 성인뿐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까지 포함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책 머리에’와 같은 부분에서라도 해제 성격의 글이 간략하게라도 포함된 것은 ‘해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에 대한 정보를 밝히고 있는 경우는 70편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58%나 적었다.

다음으로 현대역 된 고소설 전자책이 구독자들에게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를 ‘밀리완독지수’를 통해 살펴보자.

<p>홀릭 부담 없이 술술 읽다보면 빠져드는 책 (완독할 확률 , 완독예상 시간) 51편, 32권</p>	<p>밀리 픽 밀리 회원들이 검증한 후회없는 책 (완독할 확률 , 완독예상 시간) 4편, 4권</p>
<p>히든 밀리 회원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는 책 (완독할 확률 , 완독예상 시간) 77편, 38권</p>	<p>마니아 마니아들이 꼭 빠진 읽을수록 보람 있는 책 (완독할 확률 , 완독예상 시간) 11편, 9권</p>
<p>밀리완독지수가 부여되지 못한 출판물 (186편, 99권)</p>	

‘밀리의 서재’는 구독자들이 읽고 싶은 책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밀리 독서 지수’를 고안해 제공하고 있다. ‘밀리 독서 지수’는 ‘취향 지수’와 ‘완독 지수(홀릭, 밀리픽, 히든, 마니아)’ 두 가지가 제공되고 있는데, ‘취향 지수’는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얼마나 이 책을 좋아할지 예상한 확률’로, ‘완독 지수’는 ‘밀리의 서재’ 회원들의 독서 통계에 기반한 완독할 확률, 완독 예상 시간을 일컫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완독 지수’의 산출 방식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데이터가 축적된 도서를 대상으로 집계하며, ‘완독할 확률’은 해당 책을 70% 이상 읽을 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책을 읽은 사람 중 70% 이상 읽은 사람들의 비율로, 해당 책을 20% 미만 읽은 사람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으로, ‘완독 예상 시간’은 해당 책을 70% 이상 읽은 사람들이 한 페이지를 읽는데 걸린 시간을 계산해 산출한 것이라 소개하고 있다.²⁴⁾

2023년 8월 현재, ‘밀리 완독 지수’가 부여된 전자책은 83권, 아직 데이터 축적 부족으로 지수가 부여되지 못한 전자책은 99권으로 확인된다. 이는 달리 이야기하면 ‘밀리의 서재’에서 유통되는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 가운데 적어도 대략 46%가 ‘완독 지수’를 산출할 수 있을 정도로 구독자들에게 유통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완독 지수’가 산출된 전자책의 경우, 회원들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는 책으로 안내되는 ‘히든’에 속한 책이 39권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담 없이 술술 읽다 보면 빠져드는 책으로 안내되는 홀릭에 속한 책이 32권이었다. 완독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완독할 확률이 높은 ‘밀리픽’에 해당하는 전자책으로는 『계축일기』(서해문집), 『사씨남정기』(미래주니어), 『옹고집전』(미래주니어), 『채봉감별곡』(해성전자북)이 파악되었다.

3. 도서 구독 플랫폼 속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의 현대역 및 유통 활성화 방안 모색

이번 장에서는 도서 구독 플랫폼에서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의 유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출판물을 현대역 하는 방안과 유통 활성화 방안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독 플랫폼에서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질의 고소설 현대역의 유입이 필요하다. 이에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을 출판할 때 유통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고려해야 하는 점을 살피고, 이를 구독 플랫폼이라는 속성을 고려해 유통을 모색할 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만 구독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전자책은 구독 플랫폼이 아닌 곳에서 유통되는 전자책 일반과 그 특성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장에서는 전자책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을 출판할 때

24) 밀리독서연구소, 『밀리 독서 리포트 2020』, 밀리의 서재, 2020, 14~16쪽.

고려할 점과 이를 구독 서비스 플랫폼에서 유통시킬 때 고려할 점을 가능한 아울러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도서 구독 플랫폼 속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의 현대역 방안

도서 구독 플랫폼 속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의 유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기에 앞서, 먼저 플랫폼에서 유통될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의 현대역 방안을 우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유통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 즉 많은 독자들이 고소설 현대역을 찾게 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다른 아닌 양질의 현대역이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적어도 편역자에 대한 정보와 현대역의 저본이 된 이본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앞서 <표 5>와 <표 6>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밀리의 서재’에서 유통되는 현대역 전자책 가운데 편역자의 이름조차 기재되지 않거나 편집부로 모호하게 처리되어 알 수 없는 경우가 전체 182권 중 36권으로, 이는 유통되는 총 전자책의 약 20%에 해당한다. 이에 더해 편역자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107권으로, 대략 59%에 달한다. 편역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현대역 출판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보 제시가 필요한 부분이다.

곧바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유사한 작품군이라 할 수 있는 세계고전문학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고소설 편역자 정보의 기재가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세계고전문학 중 많이 읽히는 <데미안>의 경우, 24권의 현대역 전자책이 ‘밀리의 서재’에서 유통 중인데, 이중 편역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1권이며, 편역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5권에 그치고 있어, 한국고소설 전자책에 비해 편역자의 정보가 좀 더 잘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 다른 작품인 <키다리 아저씨>의 경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키다리 아저씨>의 경우 17권의 현대역 전자책이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데, 이중 편역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

은 경우는 1권이며, 편역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5권에 그치고 있다.²⁵⁾

이와 함께 고소설은 지금과 다른 시대에 신출된 작품이기에 이를 지금의 어휘로 옮기더라도 작품을 이해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초 정보들은 해제로 충실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도 국문장편소설을 현대적으로 출판하는데 있어 동시대인의 눈높이에 맞게 작품의 성격과 위상을 쉬우면서도 흥미롭게 풀어낸 학술 해제가 필요함에 대해 지적한 바있다.²⁶⁾ 이러한 해제와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 현대역의 대상이 된 고소설 원본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다. 대개 다양한 종의 이본이 있는 고소설의 특성상 현대역을 할 경우 어떤 이본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 역시도 현대역 전자책의 질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현재 ‘밀리의 서재’에서 제공되는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 중 저본에 대한 정보를 밝힌 경우가 22%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더욱 필요하다.

현대역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인 편역자 기재와 번역 대상이 된 책에 대한 정보 제공은 현대역 출판물에 대한 기초 정보를 주는 것이라고 볼 때, 앞으로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을 출간하는 데 있어 이를 밝히는 쪽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현대역 전자책의 유통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는 책을 출간하는 전문번역자와 출판사, 구독 플랫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구독 서비스 내에서 유통되는 전자책의 형태 및 기능을 가독성과 편의성 측면을 고려해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려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밀리의 서재’에서 유통되는 전자책의 형태는 뷰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전자책과 기능을 활용하기 어려운 PDF 전자책 두

25) ‘밀리의 서재’ 내 〈키다리 아저씨〉에 대한 편역자 정보 조사는 학술대회 발표 이후인 2023년 11월 14일에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26) 정혜경(2021), 앞의 논문, 150쪽.

가지이다. 현재 뷰어에서 전자책을 열람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은 ‘공유, 하이라이트, 메모, 사전 검색, 구글 검색’이다. 이는 일반 전자책을 뷰어에서 열람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하다. 그러나 구독 플랫폼 내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다른 이와 독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수월하도록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읽고 있는 책의 중요 부분에 하이라이트 표시를 하고, 자신의 생각을 메모로 남긴 후 ‘한 줄 리뷰’나 ‘포스트’²⁷⁾ 작성을 통해 공유를 수월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은 제품보다 서비스를 선호하며,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 여기는 새로운 소비자의 특성²⁸⁾에 맞춤형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한 채 단지 열람만 가능한 PDF 전자책은 구독자로 하여금 독서의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다. 2021년 독서실태조사에서 전자책을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로 “다양한 기능의 편리성”이 차지한 점이나, 전자책 이용에 대한 개선 요구의 하나로 “기술적 기능 개선”이 4위를 차지한 것을 고려한다면²⁹⁾ 향후 고소설 현대역을 전자책으로 출간하고, 이를 구독 플랫폼에서 유통시키는 점을 염두에 둘 경우, 뷰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전자책으로의 출간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뷰어 기능과 연동해 현대역의 주석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볼 점이 있다. 고소설을 현대역 하는 과정에서 어휘나 전고() 등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해 주석을 밝히는 경우는 흔히 있다. ‘밀리의 서재’에서 유통되는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의 경우, 주석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 182권 가운데 98권으로 약 54%를, 주석을 활용하는 경우는 84권으로

27) “밀리의 서재”는 ‘한 줄 리뷰’나 ‘포스트’를 구독자가 작성해 다른 구독자와 “밀리의 서재” 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8) 티엔 추오·게이브 와이저트 저, 박선령 역(2019), 앞의 책.

29) 문화체육관광부(2021), 앞의 보고서, 220쪽, 237쪽.

약 46%를 차지했다. 주석의 활용 방식은 각주³⁰⁾가 38권, 내주³¹⁾가 41권, 미주가 5권이었다. 구독자들이 전자책을 PC뷰어뿐만 아니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열람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용 환경에 따라 읽기가 불편한 각주나 미주보다는 내주를 활용하는 것이 좀더 가독성을 높일 방안으로 여겨진다.

이에 더해 전자책 뷰어 기능 중 사전 및 구글 검색이 연동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대역 과정에서 주석을 넣을 어휘의 수나 정보를 좀 더 간략하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현재는 사전 검색 기능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대역을 하는 편역자나 구독 플랫폼 담당자 모두 개선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컨대 푸른생각에서 출간한 『구운몽』의 경우 내주를 현재 적용하고 있는데, ‘동정호(중국 호남성 북쪽에 있는 호수로 주위가 팔구백 리에 이른다 고 함)’, ‘소상강(중국 호남성을 흐르는 큰 강)’, ‘바리매(절에서 쓰는 중의 밥그릇)’ 등의 표현이 그 예이다.³²⁾ ‘동정호’, ‘소상강’, ‘바리매’와 같은 어휘는 보충설명이 있다면 보다 서사 맥락과 장소성을 파악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주석이 있으면 좋을 부분이다. 그런데 ‘동정호’나 ‘바리매’와 같은 어휘는 ‘밀리의 서재’ 뷰어와 연동된 다음Daum 사전에서도 검색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서사 맥락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주석을 달 때 생략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뷰어의 연동 기능이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대역을 할 때 사전에서 검색될 수 있는 어휘로 옮기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식의숲(넥스스)이나 리플레이에서 출간한 『구운몽』의 경우, ‘바리매’와 같은 어휘는 뷰

30) 각주를 활용한 경우에는 각주뿐 아니라 각주처럼 한 두 문단 아래 주석을 기재한 경우도 포함했다.

31) 내주를 활용한 경우에는 어려운 어휘를 괄호 안에 풀어 설명한 경우를 포함했다.

32) 장효현 편, 『구운몽·사씨남정기』, 푸른생각, 2021, 5%.

어에서 사전 검색 기능을 적용했을 때 ‘바리때 : 절에서 승려들이 쓰는 밥그릇’³³⁾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동정호’의 경우, 이들 책에서는 이를 ‘동정강’으로 옳기고 있는데, ‘동정강’을 기능을 통해 사전 검색하면, 연결되는 내용은 전혀 관련이 없는 ‘동정남()’으로 나타난다. 한편 ‘소상강’의 경우 ‘소상강’으로 옳기고 있으나, 사전에 소상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전혀 맥락과 관계 없는 ‘사상가로 연결되어, 작품을 독해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³⁴⁾ 따라서 향후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을 출간 할 때, 편역자는 사전 검색 기능도 염두에 두면서 현대역을 할 필요가 있어보이며, 구독 플랫폼에서는 사전 검색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전을 어휘뿐만 아니라 이미지까지 제공되는 사전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고소설을 향유하던 이들이 살았던 시기의 생활 문화나 공간지리 등의 정보를 이미지를 통해 접하게 되면 글자만 보았을 때에 비해 현대 독자들이 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고소설 현대역을 전자책으로 출간할 경우 소제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장편소설의 경우 회장체 소설과 같이 긴 서사를 여러 회로 나누며 소제목을 붙인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고소설은 소제목이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때문에 현재에도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역을 하는 과정에서 편역자들이 소제목을 붙이는 경우는 쉽게 발견된다. 그런데 구독 플랫폼을 이용해 책을 읽는 독자라면 상당수는 웹소설이나 웹툰 독자층과도 겹칠 확률이 높다. 웹소설에 익숙한 독자들을 고려한다면 고소설을 현대역 할 때 보다 짧은 서사 단위에 소제목을 붙이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혹은 한 편의 고소설을 웹툰이나 웹소설과 같이 짧은 분량으로 나누어 구독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33) 「바리때」, 『다음Daum 어학사전』, <https://dic.daum.net>, 2023.08.15. 검색.

34) 김성해 옳김, 『구운몽』, 지식의숲(넥서스), 2015, 4%.; 정석환 편, 『구운몽』, 리플레이, 2019, 4%.

짧은 분량에 소제목을 붙여 서사를 분절한 현대역을 선호하는 모습은 리뷰의 독자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푸른생각에서 출간한 『유충렬전』의 경우 일러두기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간중간에 소제목을 붙였음”³⁵⁾을 밝히고 있는데, 이 책은 142면의 분량의 현대역을 24개의 소제목을 붙여 나누고 있다. 하나의 소제목에 해당하는 현대역 분량은 짧게는 2면에서 길게는 13면 정도로, 일반적으로 고소설 현대역에 소제목을 붙여 내용을 구분할 때에 비해 보다 세분화해 구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소제목 붙임을 두고 독자는 “한 줄 리뷰”에서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게 중간 제목이 있어서 이해하고 읽기 좋아요”³⁶⁾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서사의 흐름을 지나칠 정도로 방해하는 분절은 지향해야 하나, 지금의 독자들의 성향을 고려해 소제목 붙이기 방식을 고민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전자책의 형태 및 기능을 가독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일반 전자책에도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구독 플랫폼에서 독서를 할 경우 이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측면, 구독 플랫폼이라는 월정액 무제한이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가독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기능 활용이 좋은 전자책의 출간과 유통에 대한 고민은 책을 출간하는 전문번역자와 출판사, 구독 플랫폼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과 대중들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대역의 범주 및 출간 매체를 확장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소설을 현대역 하는 과정에서 상정한 대상 독자에 따라 원전의 내용과 의미를 살리더라도 의역을 하는 경우는 흔히 발견된다. 이같이 대상 독자에 따라 고소설의 현대역을 의역하는 방법을 매체에도 확장해 적용해볼 수 있다. 선행연

35) 이병찬 편, 『유충렬전』, 푸른생각, 2021, 7%.

36) 외로운 아티스트_862786, 『『유충렬전』 한 줄 리뷰』, 2021.11.26.,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35610?referrer=searchResult>, 2023.08.15. 검색.

구에서도 국문장편소설을 포함한 고전문학을 현대화하는 방안으로 오디오 북 형태의 제작이나 숏폼이나 짤 형식의 출판물 제작을 제안했었다.³⁷⁾ 여기서는 이를 도서 구독 플랫폼이라는 유통 상황과 연계해 구체적으로 제안해보고자 한다. 현재 ‘밀리의 서재’에서는 숏폼 콘텐츠에 익숙한 대중들을 고려해 이를 반영한 출판물로 ‘도슨트북’과 ‘챗북’을 제공 중이다.

‘챗북’은 채팅에 익숙한 독자들을 고려해 채팅 형식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밀리의 서재’에서는 전문 작가진이 다양한 분야의 원작 도서를 각색으로 구독자들이 쉽게 도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⁸⁾ ‘밀리의 서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챗북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 하나가 ‘챗북 쇼트 클래식’으로, 『인간실격』,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등 45종의 세계고전문학을 채팅 형식으로 줄거리와 해제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8월 현재 45종 가운데 한국고소설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2023년 처음 제공하기 시작한 ‘도슨트북’은 “스토리 요약부터 해설까지, 도슨트와 함께 하는 편한 도서”라는 문구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읽기 어려웠던 책을 미술관에서 도슨트의 설명을 듣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책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도슨트북으로 ‘밀리의 서재’에서 처음 제공한 『위대한 개츠비』의 경우 ‘도슨트북 소개, 스토리 보기, 해설 보기’로 구성되어 있다. ‘스토리 보기’에서는 배경음악과 함께 작품의 줄거리를 웹툰처럼 제공하며, 전문가의 해설이 제시되는 ‘해설 보기’에서는 시대 배경, 등장인물, 작품의 메시지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원작이 되는 도서를 연관도서로 제시하고 있어 도슨트북을 접한 독자가 좀더 원작을 즐기고 싶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동하고 있다.

‘챗북 쇼트 클래식’이나 ‘도슨트북’과 같은 고전을 재가공한 형태의 출판

37) 정혜경(2021), 앞의 논문, 148~151쪽.

38) 송석주, 「신개념 독서법, ‘밀리 챗북’으로 대화하듯 책을 즐기자, 《독서신문》, 2020.02.14, <http://www.readersnews.com>, 2023.08.16. 검색.

물은 우리 고소설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겨진다. 현대역을 글자 그대로 책의 형태로만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확장한다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과 고소설의 소통을 보다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챗북’이나 ‘도슨트북’은 대중들에게 이 자체로 고소설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원작이 되는 도서로 대중들을 이끄는 연결다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즉 ‘챗북’이나 ‘도슨트북’을 통해 고소설에 대한 흥미가 생겨 원작 작품의 현대역을 찾아 읽는 형태로 선순환 확장을 이끌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챗북을 읽을 수 있는 곳이 ‘밀리의 서재’ 플랫폼임을 감안한다면, 대중들이 숏폼 형태의 출판물을 개별 구매할 확률은 낮아보인다. 때문에 월정액으로 운영되는 도서 구독형 플랫폼에서 숏폼 형태의 출판물을 통해 현대 독자가 고소설과 조우할 수도 있게 하는 동시에, 이를 접한 현대 독자가 큐레이션 된 원작 도서까지 찾아 읽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과 보다 가까워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구독형 도서 플랫폼에서 세계고전문학이나 현대소설, 혹은 베스트셀러에 비해 한국고소설의 시장 경쟁력이 약한 점을 고려해, 고소설 가운데 우선적으로 몇 작품을 선별해 제작한 후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2) 도서 구독 플랫폼 속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의 유통 활성화 방안

이번 부분에서는 가독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양질의 현대역 출판물의 유통을 도서 구독 플랫폼에서 활성화 할 방안을 궁리해보자. 첫째, 양질의 현대역 전자책의 유입 및 공유 확대가 필요하다. 고소설을 현대어로 옮기는 것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다. 더욱이 유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현대역의 질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좋지 못한 현대역 전자책이 구독 플랫폼 안에서 계속 유통될 경우, 이는

오히려 대중들에게 고소설에 대한 좋지 못한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때문에 플랫폼 내 고소설 유통 활성화를 위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필수적인 것이 꼭 양질의 전자책의 지속적 유입과 이에 대한 공유 확대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서 구독 플랫폼은 일정 금액을 지불해 일정 기간 무제한으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밀리의 서재’는 현재 서점 3사(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커뮤니케이션)의 베스트셀러 100위에 오른 책 가운데 73권을 구독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 1권을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을 월정액 료로 지불하면 구독 플랫폼 안에서 베스트셀러뿐 아니라 궁금한 책, 필요로 한 책을 무제한으로 열람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구독 플랫폼의 특성은 대중이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을 접근하는데 따른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이 몇 번의 기회가 결국 대중에게 초중고등학교 교육 이후로 고소설 내지는 고소설 현대역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때문에 양질의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의 지속적인 유입은 꼭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밀리의 서재’ 내 가장 많은 수의 현대역 전자책이 있는 고소설은 <홍길동전>으로, 16권의 전자책이 플랫폼에서 제공 중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인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은 총 72권³⁹⁾으로, 이는 ‘밀리의 서재’에서 유통 중인 것의 4.5배에 달한

39) 2023년 8월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중인 <홍길동전> 현대역 출판물 72권의 출판물 가운데, 13권의 책은 ‘밀리의 서재’에서도 제공 중이다. 교보문고에서 판매중인 72권의 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중복 집계) 종이책이 57권, 전자책이 37권, 교보문고 구독 플랫폼인 SAM에서 구독 가능한 것이 22권이다. 또한 72권의 출판물을 교보문고에서 제공하는 카테고리 분류에 따라 정리해보면, 소설 분야 24권, 아동 분야 9권, 어린이 분야 19권, 청소년 분야 12권, 인문 분야 4권, 한국소개도서 분야 2권, 유아 분야 1권, 교재 분야 1권이다.

다. 물론 현재 서점에서 유통 중인 현대역 종이책이나 전자책의 질이 모두 양질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롭게 요구 되는 것이 번역임을 감안했을 때, 지속적으로 양질의 전자책 유입은 필요하다. 이는 더욱이 전자책을 이용하는 구독자들의 개선 요구 사항 중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 서비스’가 1위를 차지한다는 점⁴⁰⁾을 염두에 두어도 그렇다. 양질의 고소설 현대역을 구독 플랫폼 서비스 내에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전문 번역자와 출판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내용과 형식 모두의 측면에서 좋은 현대역 전자책이 출간되어야 하며, 구독 플랫폼에서는 이를 유입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함께 독자들의 참여를 통한 고소설 현대역의 질적 수준에 대한 공유를 보다 활성화 할방법 고안도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밀리의 서재’는 일정 수의 회원들이 읽은 책에 대해 ‘밀리 완독 지수’를 부여해 책을 읽으려는 새로운 독자들에게 해당 책에 대해 지니고 있는 동시대인들의 읽는 시간이나 완독율에 대한 감각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완독율이 높은 책이 곧바로 현대역의 질이 좋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상당수의 독자가 완독을 했다는 것은 오늘날의 독서 감각으로 현대역을 읽어나가는 데 무리가 없었음 더 나아가 완독할 만큼의 가치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플랫폼 회원들의 책에 대한 반응을 좀 더 장르나 해당 도서와 연동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도 현대역의 질적 수준에 대한 공유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밀리의 서재’는 ‘추천’이라는 카테고리 내에 ‘포스트, 한 줄 리뷰, 하이라이트, 인생책’과 같은 하위 코너를 마련해 독자들이 책을 읽으면서 기록했던 책에 대한 단상이나 중요 표시를 한 부분, 책에 대한 평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40) 문화체육관광부(2021), 앞의 보고서, 237쪽.

이러한 기능들은 도서나 도서 장르 분류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기 보다는 대체로는 독자들의 반응 순서에 따라 기재되고 있다. 때문에 실시간 반응을 볼 수 있게 하는 것과 함께 도서의 하위 유형이나 장르에 따라서도 이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도서 유형별로 포스팅에 대한 독자들의 팔로잉이 많은 ‘밀리의 서재’ 회원의 포스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이 마련된다면 도서 구독 플랫폼 내 참여형 콘텐츠 시스템을 통해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의 질적 수준을 독자들 사이에서 공유하고,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킴으로써 유통의 선순환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의 큐레이션 방식에 대한 고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구독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경험하고 싶은 상품을 주로 추천에 의해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OTT 서비스나 커피나 전통주와 같은 기호나 취향을 반영하는 구독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이 플랫폼의 추천에 따라 제품을 소비하는 모습은 쉽게 발견된다. 때문에 선행연구에서도 국문장편소설의 현대적 출판물의 대중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고전과 국문장편소설의 큐레이션 서비스로 독자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추천하고 연결하는 방안, OTT 서비스 내에서 고소설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마이크로 장르 개발과 큐레이션 작업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⁴¹⁾

‘밀리의 서재’도 회원의 개별 취향을 고려한 큐레이션을 전통적으로 도서를 추천하던 방식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서재에 담은 000 비슷한 책”, “선호하는 카테고리 00 관련 책”, “최근 완독한 00 비슷한 책”, “000님의 독서 기록을 분석해 추천하는 책” 등과 같은 추천방식은 회원의 개별 취향을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지금! 서점 베스트”,

41) 정혜경(2022), 앞의 논문, 152쪽; 정혜경(2021), 앞의 논문, 46쪽.

“한달 이내에 출간된 책”, “이번 주 취향별 추천책 - 트렌드, 라이프, 힐링, 지적교양, 소설, 장르”나 주제나 키워드 중심으로 출판물을 엮어 검색 화면의 카테고리 분류에서 세분화해서 노출시키는 방식은 전통적인 추천 방식을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큐레이션은 구독 플랫폼 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도서에 대한 선호뿐만 아니라 구독자의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구독자는 검색한 책에 관심이 있거나 책을 읽으려고 할 때 ‘내 서재’ 코너에 책을 담는데, 이때 ‘밀리리의 서재’는 책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화면 상단에 ‘이 책이 담긴 서재’라는 이름으로 회원들 가운데 몇 명이 이 책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서재에 담았던 책은 이용자가 다 읽은 후 서재에서 정리하고자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으며, 전자책이 플랫폼에서 유통된 시점에 따라 누적 서재 수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곧바로 책에 대한 선호 수치로 보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인 선호도는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현재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 182권 가운데 500개 이상의 서재에 담긴 전자책은 16권⁴²⁾으로, 이 중 12권이 검색 화면의 카테고리 분야에서 “넥서스 한국문학선집”으로 추천되고 있거나, “한국문학읽다 시리즈”⁴³⁾라는 이름으로 엮은 책들과 그 포스팅에 속한 책이다. 이로 미루어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의 큐레이션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앞의 사례 이외에도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의 큐레이션 방안으로 웹소설

42) 2023년 8월 현재의 16권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한국의 동화1-토끼전』(계몽사), 『구운몽』(지식의숲-넥서스), 『허생전』(주먹북), 『사씨남정기』(지식의숲), 『구운몽』(리플레이), 『금오신화』(지식의숲), 『홍길동전』(지식의숲), 『춘향전·옹고집전』(지식의숲), 『숙향전·운영전』(지식의숲), 『구운몽』(넥서스), 『어린이 한국의 동화4-심청전』(계몽사), 『금오신화』(펍클래식코리아), 『양반전 외』(지식의숲), 『전우치전·김원전』(지식의숲), 『사씨남정기』(리플레이), 『홍부전·장끼전·토끼전』(지식의숲).

43) 밀리시리즈, <https://www.millie.co.kr/v3/post/397105>, 2020.09.15.

과의 큐레이션, 구독 플랫폼에서 제작한(유통한) 고소설 인문서와의 큐레이션을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대개 구독 플랫폼은 특성상 제품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큐레이션을 활발히 한다. 도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 ‘밀리의 서재’ 역시 플랫폼 내 유통되고 있는 도서들의 큐레이션을 활발히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고소설 현대역을 고소설 현대역뿐 아니라 시장 경쟁력이 보다 큰 다른 책과 연동해 큐레이션을 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우선 웹소설과의 큐레이션이다. 구독 플랫폼의 특성상 일반 소설 이외에도 장르소설이 함께 유통된다는 점, 구독 플랫폼의 이용자들이 장르소설에 대한 독서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웹소설과의 큐레이션도 충분히 고소설을 독자들에게 보다 흥미 있게 다가가게 할 방법이다. 예컨대 고전서사에 해당하는 『한중록』(서해문집)의 현대역 전자책을 읽은 독자는 “한 줄 리뷰”에 “옷소매 붉은 끝동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⁴⁴⁾라고 남기고 있다. <옷소매 붉은 끝동>은 2017년 2권의 책으로 출판된 후, 리더북스, 네이버 시리즈 등 인터넷 콘텐츠 플랫폼에서도 웹소설로 제공되었고, 인기에 힘입어 웹툰이 연재되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작품⁴⁵⁾으로, 이 리뷰를 단 독자는 장르 소설 내지는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한중록』 전자책을 열람하게 하는 데까지 오게 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적용해본다면, 예컨대 “잘 짜여진 플롯, 전개 빠른 막장, 현대에 작가해도 인기 많았을 듯”이나 “전개가 빠르고 자극적인, 고전 막장 소설 느낌. 읽어봐야 할 고전문학”⁴⁶⁾이라는 리뷰가 달린 『사씨남정기』나 “김진

44) 꼬북대장,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63664?referrer=searchRecent>, 2022.01.03.

45) 김문희, 「『옷소매 붉은 끝동』 스토리텔링의 고전소설 지식 활용의 효과와 의미」, 『한국고전연구』 58, 한국고전연구학회, 2022, 154쪽.

46) 고하루비,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5262726?referrer=searchResult>, 2023.08.08; 루나책읽어!, 위 사이트, 2022.12.19.

사와 운영의 사랑 이야기가 정말 아름다웠다”⁴⁷⁾라는 리뷰가 달린 『운영전』과 같은 경우 사극 로맨스나 로맨스 판타지 장르의 웹소설과 큐레이션 하거나, 〈전우치전〉, 〈박씨전〉과 같은 작품을 무협이나 퓨전 판타지, 역사 장르의 웹소설과 큐레이션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인문서와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의 큐레이션이다. 고전문학을 대중화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고전문학 인문서 출간은 유용한 방법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다. 구독 플랫폼의 특성상, 이러한 방식은 보다 대중들에게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에 대한 접근에 대한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애육의 고전소설』⁴⁸⁾을 통해 이를 적용해보자. 이 책은 ‘밀리 오리지널’에서 연재되었다가, 전자책과 종이책으로 출간된 후, ‘밀리의 서재’에서 현재까지도 유통 중인 작품이다. 〈춘향전〉, 〈구운몽〉부터 〈포의교집〉이나 〈은애전〉에 이르기까지 잘 알려진 고소설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대중에게 덜 알려진 고소설 총 24권에 대해 작품 정보와 작가의 해석을 만화 형식으로 소개한 이 책에 대한 한 줄 리뷰로는 “고전문학을 신선한 관점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외에도 “책에 나오는 책들을 다 읽어보고 서글의 생각에 가까워지고 싶다.”, “한국 고전소설이 궁금해져 찾아 읽고 싶어져요”, “작가님 덕분에 우리나라 고전소설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고 싶어졌어요.”⁴⁹⁾와 같이 이 책으로 인해 고소설을 읽어보고 싶어졌다는 반응이 상당수이다. ‘밀리의 서재’는 책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뿐만 아니라 “한 줄 리뷰”나 “포스트”를 통해 구독자들이 적은 글들을 피드 화면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애육의 고전소설』에 대한 포스트

47) 소레와,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5262741?referrer=searchResult>, 2022.12.17.

48) 서글, 『애육의 고전소설』, 이후진프레스, 2023.

49) 양양냇,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81348?referrer=searchResult>, 2023.05.16.; Rinku, 2023.02.15.; 착한고수_1147353, 2023.01.23.; 화려한 개척자_192523, 2022.12.17.

는 현재 이 책만 연관도서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러한 인문서에서 다른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과 인문서를 큐레이션을 한다면 고소설에 대한 접근을 구독자로 하여금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4. 결론

이 글은 현대역 된 고소설 출판물을 현대 독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 가운데 하나로, 도서 구독 플랫폼 속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도서 구독 플랫폼과의 연계 속에서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의 현대역 및 유통 활성화 방안을 고민한 것이다. 전반적인 독서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 독자들이 현대역된 고소설 출판물을 찾는 일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모든 고소설을 현대역 해 현대인들에게 읽혀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지금, 여기’에 충분히 유의미한 고소설이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가치가 있음을 생각한다면, 시간이 지나도 의미 있는 고소설은 현대인들과 만날 필요가 있다. 때문에 독서율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책 독서율은 높아지고 있는 점, 사회 전반에 걸쳐 구독 경제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글에서는 도서 구독 플랫폼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밀리의 서재’를 대상으로 이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소설 현대역 전자책의 실태를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향후 도서 구독 플랫폼과 연계해 고소설 현대역 출판물의 현대역 및 유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현대역 출판 방안으로는 양질의 현대역 출판물 제작을 위한 번역자, 편역자, 해제, 저본 정보 등의 기재 확대, 뷰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현대역 출판물의 제작 확대, 챗북이나 도슨트북 등과 같이 현대역 출판물의 범주 및 출간 매체 확장을 통한 선순환 유도를 들었다. 또한 현대역 출판물의 유통 활성화 방안으로는 양질의

현대역 전자책 유입 확대, 독자들의 포스팅, 하이라이트 설정 등을 공유함으로써 유통되는 현대역 출판물의 질 판단 공유 확대, 플랫폼 내 웹소설이나 자채 제작 인문서 등과의 큐레이션 확대를 들었다.

도서 구독 플랫폼은 현재 진행형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넷플릭스의 사례로 미루어볼 때, 앞으로 점점 더 이 같은 도서 구독 플랫폼은 확대될 플랫폼으로 여겨진다. 단, 이러한 플랫폼이 대중 독자뿐 아니라 작가, 출판사, 출판유통사, 플랫폼 운영사에 관계된 다양한 이들이 상생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많은 고민과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밀리의 서재(<https://www.millie.co.kr>) 2023.11.14. 검색.
-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https://product.kyobobook.co.kr>) 2023.08.15. 검색.
- 충청남도교육청 통합도서관(<https://lib.cne.go.kr>) 2023.08.15. 검색.
- 김성해 옮김, 구운몽, 지식의숲(넥서스), 2015, 전자책.
- 서굴, 애욕의 고전소설, 이후진프레스, 2023, 1 304쪽.
- 이병찬 편, 유충렬전, 푸른생각, 2021, 1 154쪽.
- 장효현 편, 구운몽 사씨남정기, 푸른생각, 2021, 1 242쪽.
- 정석환 편, 구운몽, 리플레이, 2019, 전자책.
- 강문중, 고전소설 대중화 양상 연구, 한국고전연구 59, 한국고전연구학회, 2022, 57 90쪽.
- 권혁래, 구운몽의 현재적 소통과 다시 쓰기 출판물, 온지논총 27, 온지학회, 2011, 7 41쪽.
- 김명주, 한국고전소설 현대역 텍스트 연구: 홍길동전, 사씨남정기, 박씨 전 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 168쪽.
- 김문희, 옷소매 붉은 끝동 스토리텔링의 고전소설 지식 활용의 효과와 의미, 한국고전연구 58, 한국고전연구학회, 2022, 153 189쪽.
- _____, 장편가문소설의 현대역의 문제와 고전()의 재구성, 우리말 글 57, 우리말글학회, 2013, 161 190쪽.
-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2019, 1 462쪽.
- _____,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2021, 1 490쪽.
- 밀리독서연구소, 밀리 독서 리포트 2020, 밀리의 서재, 2020, 1 248쪽, 전자책.
- 송성욱, 구운몽 과의 현대적 소통-현대역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399 427쪽.
- _____, 고전소설 텍스트 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학논총 41, 한국문학회, 2005, 5 20쪽.
- 신혜원, 대학생의 전자책 구독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사용성 평가,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1 117쪽.
- 유광수, 고전문학의 계승과 확장 방안-블로그, 팟캐스트 연재의 경우, 열상고전연구 80, 열상고전연구회, 2023, 195 234쪽.

- _____, 고전의 현재적 계승 방법과 의미-라디오 방송의 경우, 어문논집 87, 중앙어문학회, 2021, 35-68쪽.
- 임치균, 번역의 관점으로 본 한글 고전소설 현대어화의 실제:낙선재본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24, 돈암어문학회, 2011, 7-32쪽.
- 정다희, 전자책 구독 서비스 이용 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1(10),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0, 1791-1800쪽.
- 정혜경, 고전소설 콘텐츠의 OTT 서비스와 그 미래-구독형 서비스 넷플릭스와 왓챠의 영화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75, 열상고전연구회, 2021, 45-90쪽.
- _____, 국문장편소설의 현대적 출판과 대중화 전략, 한국고전연구 56, 한국고전연구학회, 2022, 123-161쪽.
- 조현우, 국문 고전소설의 현대적 방안 연구, 한국고전연구 54,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 47-78쪽.
- 조희웅, 한국고전소설사큰사전-부록1. 작품 목록 70, 지식을만드는지식, 2017, 1-308쪽.
- 천혜정, 누가 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가: 구독 서비스 유형별 구독 동기, 구독 만족도 및 구독 지속 의도의 관계, 소비자문제연구 53(1), 한국소비자원, 2022, 91-119쪽.
- 최연진, 전자책 구독 플랫폼 소설 연구 '밀리의 서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1-109쪽.
- 김만중 지음, 김성혜 옮김, 사씨남정기 한 줄 리뷰,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5262726?referrer=searchResult>.
2023.08.16. 검색.
- 다음Daum 어학사전, <https://dic.daum.net>, 2023.08.15. 검색.
- 도현정, 이병헌 빼고도 잘 나간다 '구독'으로 42억 벌어들인 이 회사, 중앙일보, 2023.07.17., <https://www.joongang.co.kr>, 2023.08.14. 검색.
- 류정운, 국내 최대 전자책 플랫폼 '밀리의 서재', 향후 전망은, 업타운뉴스, 2022.10.31. <http://www.updownnews.co.kr>, 2023.08.14. 검색.
- 박보성, 충남교육청, 통합전자도서관으로 슬기로운 여름방학 독서생활 밀착 지원, 충청일보, 2023.07.28, <https://www.ccdailynews.com>, 2023.08.14. 검색.
- 서균, 애육의 고전소설 한 줄 리뷰.

-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81348?referrer=searchResult>. 2023.08.16. 검색.
- 송석주, 전자책 급속 확장에 국내외 출판계는 기대반 우려반, 독서신문, 2021.03.16, <http://www.readersnews.com>, 2023.08.13. 접속.
- _____, 신개념 독서법, ‘밀리 챗북’으로 대화하듯 책을 즐기자, 독서신문, 2020.02.14, <http://www.readersnews.com>, 2023.08.16. 검색.
- 송창현 옮김, 숙향전 운영진 한 줄 리뷰,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5262741?referrer=searchResult>.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list.naver?cid=43667&categoryId=43667>,
2023.08.14. 검색.
- 안지섭, 문체부, ‘2021 국민 독서실태’ 발표 성인 학생 독서율은 줄었지만 20대는 늘었다, 독서신문, 2022.01.14., <http://www.readersnews.com>, 2023.07.13. 검색.
- 유선준, ‘밀리의 서재’,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신청...“괄목할 성장 이뤄”, 파이낸셜뉴스, 2023.06.02., <https://www.fnnews.com>, 2023.08.15. 검색.
- 이가훈, 책으로 달콤한 세상 만들어요, 한국일보, 2023.07.29.,
<https://www.hankookilbo.com>, 2023.08.14. 검색.
- 이선형 옮김, 한중록 한 줄 리뷰,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63664?referrer=searchRecent>,
2023.08.16. 검색.
- 이병찬 책임편집, 유충렬전 한 줄 리뷰,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35610?referrer=searchResult>,
2023.08.16. 검색.

ABSTRACT

Modern translated classical novel publications and changes in
publishing distribution & reading environment
- Focusing on 'Millie's Library', the book subscription platform

Choi, Sue-hyun

This paper is to examine empirically the pattern and distribution status of modern translations of classic novels in book subscription platforms, and to explore the revitalization plans of modern translation and distribution of modern translations of classical novels in the future book subscription platforms. This is considered one of the significant ways to increase even slightly the frequency of encounters between modern readers and classical novels now and in the future in a reality where the number of modern readers enjoying books through e-books is increasing among the gradual decline in overall reading rates. In addition, as a characteristic of book subscription platform, in the fact that the readers can use the books provided on the platform unlimitedly through the application by the payment of a certain fee, I think it could make the readers feel more at ease in terms of economics or convenience for their accessibility to the modern translations of classical novels.

For this, the 'Millie's Library', which begun to provide a monthly subscription service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provides a wealth of general books including novels, was first chosen as the main object of analysis. Prior to explore the future directions, I looked into the current state of modern translations of classical novels, which are currently distributed through 'Millie's Library', a book subscription platform. As of August 2023, there were 329 modern translations of classical novels of 81 works which are distributed in 'Millie's Library'. It has been confirmed that various types of subtypes of classical novels are being translated into modern times, and a significant number of e-books

published after 2020 are being distributed. Meanwhile, it was found that classical novel e-books with an e-book viewer function are being distributed compared to those without that, and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information about the translator is not recorded.

Based on this, I considered about ways to revitalize modern translation and distribution of modern e-books of classical novels in conjunction with a book subscription platform. The plan for publication of the modern version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translator, authorized translator, catalogue raisonne, and original script in the fact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distribution of qualified modern e-books.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orm and function of being distributed e-books in terms of readability within the subscription service.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ategories and publishing media of modern translation publications like short contents such as Chatbook or Docent book. Next, the activation plan for distribution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content quality and to expand the sharing through continuously securing qualified contents and consumers within the platform. Second, it is more actively necessary about curation methods like a curation of web novels or own humanities books within the platform.

Key Words

Millie's Library, Book subscription platform, Subscription economy, Modern translation of classic novels, Reading environment

논문투고일: 2023.10.15.

심사완료일: 2023.10.30.

게재확정일: 2023.11.16.